

사회

반값등록금 여과 대학 구조조정 '급물살'

광주·전남 대학 바짝 긴장

대학별 취업률 등 각종 지표 파악 대책 마련 분주

'반값 등록금' 사태가 국공립 정원 감축과 사립 학자금 대출 제한 확대 등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최근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이어, 31개 국공립대 중 하위 15%에 대해선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자금 대출제도 제한 대학을 올리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현재 23개)로 늘려 발표하겠다"면서 "31개 국공립대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제재하겠다"고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대평가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후보군에 속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경쟁 대학의 취업률 등 각종 지표를 파악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취업률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역의 한 대학은 상반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 교직원들이 1직원 1취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A대학의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이 저지는 대학에 대해 제재를 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마냥 반발할 수 만은 없는 만큼 최대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북·金 장맛비

제주 장마전선 북상

이번주 목요일께 광주와 전남·북을 포함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제주도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비가 내리겠다"며 "하지만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고 19일 예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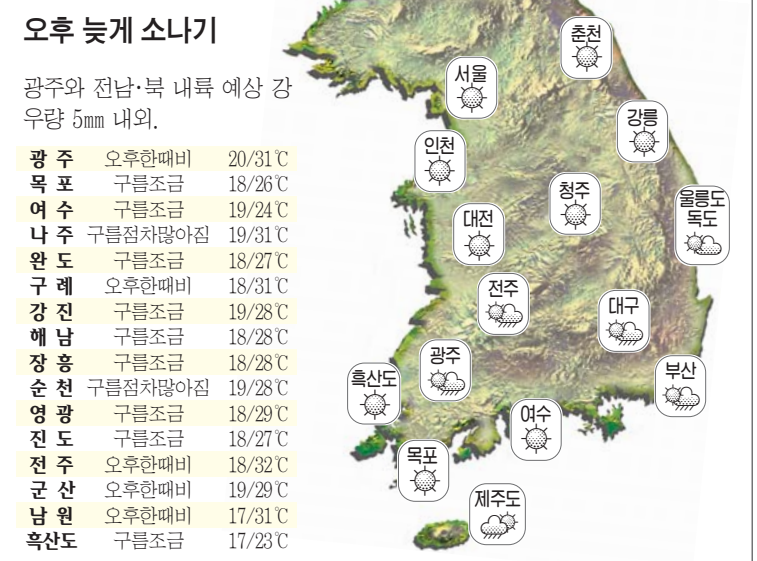
강우량은 평년(5~19mm)보다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광주와 전남·북은 지난 10일부터 장마 영향권에 접어들어 지난해보다 8일, 평년보다 13일 더 빨랐으며, 지난 1961년 기상관측 이래 50년만에 가장 빠른 장마시작 시기를 기록했다.



와! 시원하다 19일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1.1도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여름날씨를 보이자 부모와 함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찾은 한 어린이가 분수대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오늘 날씨



시간	종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	🍷	☹

대학교수 월급이 13만원?

강진 성화대 6월 급여...학교측 "재정난"

반값 등록금 문제로 대학 재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한 대학이 교수 월급으로 13만여원을 지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강진 성화대 교수들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17일 이번 달 급여로 교직원들에게 13만6000여원을 일괄 지급했다. 교직원들은 대학 측이 사정을 확인한 결과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더욱이 이 대학은 교비 횡령 등 문제로 수년간 법원·교수 간 갈등을 겪은 바 있어 교직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직원들은 20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법인의 부실운영 실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법원에 촉구할 예정이다.

교수 A씨는 "법인 측은 대학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책임을 지지 않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의 부실운영 실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족구병 환자 급증

보건당국 주의 당부

올 들어 법정감염병인 수족구병(手足口病) 환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족구병 환자는 올해 20번째 주인 지난 달 8~14일 외래환자 1000명당 9.8명, 21번째 주에는 12.9명, 22번째 주에는 16.1명, 23번째 주에는 21.1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환자 수 증가 추이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분석했다.

정부, 초·중·고 분산 방학 검토

교과부 "시행엔 많은 어려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체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7~18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초·중·고 방학 분산 방안이 제시됐다.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안한 방학 분산은 여름 휴가철에만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으로만 구분된 초·중·고 방학을 분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내년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학습여행, 예술캠프,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등도 보고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방학 분산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학을 분산하려면 2학기 체제로 굳어진 현행 초·중·고의 학기제를 바꿔 작은 단위의 학기로 쪼개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초·중·고교육과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초·중·고교육과정 시행령을 대폭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과부는 "방학 분산 문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원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www.oknwood.com

日本産 히노끼(편백나무)로 만든 가구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 탁월한 피톤치드 효과
- 아토피 치유 효과
- 비염·천식 치유 효과
- 쾌적한 산림욕 효과
- 집중력과 기억력 증가
- 해충 방지 효과
-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 면역기능 증대·자연치유 효과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광남종합목재건축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062)652-2935 · 2223 fax.062)651-514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슬후

초슬림!!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